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3주일 · 위령 성월(평신도주일)
제33권 51호(다해) 2013-11-17

[묵상]



성전파괴를 예고하시는 예수님.

평신도(平信徒)는 평범(平凡)한가?

평신도(平信徒)는 결코 평범(平凡)한 신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보통 신자가 아닙니다.

평신도는 세례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예수님의 사명(예언직, 사제직, 왕직)에 참여하는 신자입니다.

(교회헌장, 31항)

평신도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성인이 될 수 없다거나,

별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주일 미사만 봉헌하면,

충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몇 배나 더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평신도(平信徒)는 결코 평범(平凡)한 신자가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애인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썩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에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3:00 오후 6:00
주일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제단체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 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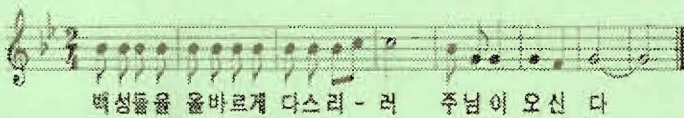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특전미사	(생) 김수지 보나 & 김지예 크리스티나, 이석주 엘리사벳
주 일 낮 미사	(연) 주용범 아브라함, 최근석 마리아, 고준희 제임스, 이경용 야고보, 전시웅 요한, 유정복 베네딕도, 이명자 로사, 이용식 베드로, 박동욱 요셉, 장현숙 발바라, 주정애 & 김재철, 김종환 야고보, 석아자 리나, 정원교 요한, 박봉순 & 허태, 김성일 바오로, 신대진 베드로, 최문 후베르토, 돌아가신 레지오단원들
	(생) 이윤조 클라라, 정훈모 바오로, 정진권 요한, 정엘리스 클라라, 이영민 요셉, 정현선 올리비아 & 박소영 프란체스카 가정, 민석준 토마스 & 미애가정 & 민영준 마르코, 신혜정 로사 가정, 김영석 마태오 가정, 이장환 마르피노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말라키 예언서(Malachi) 3,19-20

화답송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과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뻑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제 2독서 테살로니카 2서(2 Thessalonians) 3,7-12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복 음 루카(Luke) 21,5-19

영성제송 저는 하느님 곁에 있어 행복하옵니다.
주 하느님을 피신처로 삼으리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401	249	182
봉헌	270	270	259
성체	We Fall Down	292	280
파견	378	350	238

올바른 성모신심

제2장 성모 마리아에 관한 교의

4) 하늘에 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한편 마리아의 생애 마지막에 관한 많은 외경들이 전해지기 시작하였고, 마리아의 승천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제르마노(Germanus) 교부는 마리아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과 다를 수 없기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셔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방 교부로서 투르의 그레고리오(Gregorius)는 처음으로 마리아의 승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다.

6세기 전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기념일’, ‘마리아의 잠드심’, ‘마리아의 하늘에 오르심’ 축일이 거행되었다. 그 이후 많은 신학자들도 성모 승천에 관한 전승을 이어받았다. 마리아의 무죄성에 근거한 육체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께 육(肉)을 주신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육체와 유사성에 근거한 승천, 우리를 위한 천상에서의 중재를 위하여 하늘에 계셔야 하는 이유, 또는 예수님의 승천과 장래에 있을 우리의 승천 중간 단계로서 필요성 때문에 마리아의 승천을 수용하였다.

이러한 성모 승천에 관하여 호의적인 신학적 분위기와 마리아 신심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교의 선포에 힘입어 ‘성모 승천’교의를 선포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예수회 신학자 필로그라시(G. Filograssi)는 성모 승천 신앙의 근거로서 성모 의모든 덕성과 역할과 특권 곧 마리아의 ‘하느님의 어머니 되심’, 완전한 동정성, 온전한 성성(聖性), 원죄 없이 잉태되심, 그리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일치를 신학적 근거로 종합하였다.

성모 승천은 예수님 승천과 라틴 말 용어상 구별된다. 그러므로 과거 우리나라는 성모 승천을 ‘몽소승천’(蒙召昇天)으로 표현하였다.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을 능동적(Ascensio, 올라감)으로 표현하고, 마리아의 승천은 수동적(Assumptio, 올림을 받음)으로 표현하고 있다. 곧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셨다는 것이다.

마리아의 승천은 마리아께서 구세사의 목표, 곧 구원에 이르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인간이 하느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셨음을 뜻한다. 여기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의 위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거룩하게 되셨고, 그목표인 구원에 이르게 되셨다는 것이다. 자신을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신 성모 마리아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셨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머니로서 잉태되시는 순간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신 분이심을 드러낸다. 그러나 성모 승천 교의는 마리아를 위해서만 중요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성모 마리아의 근원적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구원과 그 충만함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는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삶’이라는 희망이 마리아에게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속>

개미와 베짖이

개미와 베짖이는 이웃에 함께 살았습니다. 부지런한 개미는 먹이가 없는 추운 겨울을 대비해서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일했고, 베짖이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개미를 비웃기라도 하듯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즐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어느덧 매섭게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며 먹이를 쌓아둔 개미는 따뜻한 집안에서 포근한 겨울을 보내고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여름을 보낸 베짖이에겐 비참한 현실과 뼈있는 후회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다를 바 없는 성전파괴,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인 사건을 예고하는 커다란 재앙과 혼란, 전쟁과 박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리는 이 습우화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상황은 루카복음이 저술되던 시대상황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자연파괴와 급격한 기후변화, 유럽의 금융위기와 미국의 국가부도위험, 10년 넘게 지속되는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있는 시리아 내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지진과 해일, 북한에서의 인권탄압과 종교박해 등은 인류에게 빙하기처럼 닥쳐올지도 모르는 냉혹한 미래를 경고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은 어차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기면서 오늘을 잘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며 베짖이처럼 살아야 할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자신과 가족의 안녕이 최고의 가치일 뿐, 가까운 이웃들의 불행이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먼 나라의 자연재해나 전쟁 등은 관심 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미처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무조건 오늘을 희생하며 살아야 할까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감으로 어떠한 삶의 기쁨도 즐길 여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마침 평신도 주일로서 세상 안에서 현세 사물을 비추고 관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평신도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2012년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자 수는 5,361,369명이고, 성직자 수는 4,788명이니 교회구성원의 99.9%가 평신도인 셈입니다. ‘개미’ 군단을 떠올리게 하는 이 수치는 평신도 역할의 비중과 중요성을 단적으로 말해 줍니다.

그런데 인간의 땀과 노력과 희생만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너희는 머리 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루카 21,18) 하시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베짖이의 낙천적 여유와 더불어, 은근과 끈기의 정신으로 이 땅의 복음화와 하느님나라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만일 젊은이들이 성, 사랑, 삶 전체의 참된 의미와 긴밀한 상호 연관성을 깨닫고 체험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참된 인간 생명의 문화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 회칙 97항 -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이호미 엘리사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김교복 레오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서용숙 에스텔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최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연중 제33주일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 평신도란 가톨릭 신자들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말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이전까지는 평신도를 '듣고 따르는 교회'(ecclesia discens et oboediens)라 하여 수동성을 강조했으나, 공의회를 계기로 평신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당시 공의회는 평신도의 특수 사명을 인정하고 평신도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평신도는 사회의 누룩으로서 세상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 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 세상 복음화의 최일선에서 주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1월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냅니다.

- 출처 : 천주교용어 자료집 -

◆ 본당 '성모회표 총각김치' 판매 안내

- 일시 : 17일 주일미사(특전미사 포함)
- 성모회원들이 정성들여 담근 '사우스베이 최고의 맛'
- 문의 : 권순길 체질리아 성모회장 ☎(310)365-2183

◆ 독감예방주사와 '뇌혈류검사'(중풍검사)에 2백여명 참여
지난주일 사회복지분과 행사로 열린 뇌혈류검사(중풍검사)와 독감예방주사접종에 모두 2백여명의 교우가 참여했습니다. 후원해주신 대한프로스펙트 메디컬과 수호천사보험에 감사드립니다.

◆ 제32회 남가주 한인가톨릭 추수감사절 합동 야외미사

- "저는 주님의 자애를 영원토록 노래하오리다." - 사편 89: 2-
- 일시 : 11월28일(목) 오전 10시30분 연합미사
 - 미사집전 : LA대교구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님

◆ 대림 특강

- 일시 : 대림 제1주일/제2주일(12월1일, 8일) 오후 1시
- 주제 : '신앙은 천하지대본야(天下之大本也)'
- 강사 : 오창근 베드로 본당 신부님
- 장소 : 성전
- 문의 : 금영도 베드로 ☎(213)505-2941

- 2부행사 : 오후 1시, 각성당별 경합 '전국 노래자랑' 누구나 알고있는 한국방송 '전국노래자랑' 형식으로 진행. 본당신부님과 수녀님이 함께하면 가산점 부여.
- 장소 : El Dorado E. Regional Park(통비치)
- 주최 : 남가주 한인사목 사제협의회/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주관 : 백삼위 한인성당
- * 이날 본당 평일미사(목 7:30pm) 없습니다.
- * 행사당일 오전 9시45분까지 입장하시면 공원주차장 무료로 할 수 있고 모자도 드립니다.

◆ 추수감사절미사 합동 성가연습에 적극 참여합니다.

- 일시 : 11월 24일 주일 오후 1시 본당 성전.
- 리허설 : 11월28일 당일 오전 8시 엘도라도파크 현장
- * 문의 : 민원희 안나 본당 지휘자 ☎(310)634-9631

◆ 남가주 M.E. 송년모임

- 일시 : 12월21일(토) 오후 6시
- 장소 :레이크우드 커뮤니티센터
- 참가비 : 부부당 \$150(경품 포함)
- 연락처 : 본당 M.E.대표부부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1월17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 주일학교(1,2학년 치킨케사디아)
- 11월24일(주일) : 토런스 동2반(소고기무국밥 \$3)
* 주일학교(킨더가튼 짜장밥)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순복	권태만	김대우	김상규	김옥보	김 옥	성전헌금	권태만	김대우	김옥보	김 옥	김원호	김정엽
	김원호	김재영	김정엽	김현숙	김효진	노혜숙		김현숙	김효진	노혜숙	박영룡	오세원	이경수
	민기남	민형기	박영룡	오세원	우영희	이정수		이영희	정규숙	정동호	최기남	최기호	한혁수
	이영석	이영희	이일길	정규숙	정동호	정병훈							
	최기남	최기호	최의수	한혁수									
합계 : \$2,795							합계 : \$2,335						
주일미사 헌금 : \$2,710							감사헌금 : 박정남 익 명 한남마켓 도네이션 : \$300						

주일학교 소식

◆ 주일학교 기금모금 '일일찻집' 행사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10일) 중고등부 행사용 티셔츠 제작비 지원을 위한 펀드레이징 행사에 참여해주신 교우들과 익명으로 도네이션 해주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총매출 : \$2,773
- 재료비 : \$425 * 순수익 : \$2,351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 중등부 지역사회 봉사

- 일시 : 12월7일(토) 물품전달
- 내용 : 어려운 가정돕기
- 장소 : LA 주교좌 성당(555 W. Temple St. LA)
- 문의 : 남스텔라 중등부 주임 ☎(310)918-3324

◆ 백삼위 한국학교 단어경시대회 만점 수상자 29명

지난 11월3일 실시한 백삼위한국학교 1학기 단어경시대회에서 29명의 학생들이 만점을 받았습니다.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축하합니다.

- 개나리반 : 정채윤, 문유진
- 해바라기반 : 이규연, 이가운, 박민규, 이수인, 김효정, 장은서, 권예은, 박채희
- 장미반 : 민지영, 김지인, 박인해, 성민지, 황성원, 최준민, 오엘리, 윤희수
- 코스모스반 : 박채원
- 민들레반 : 이용현, 장운서, 박소은, 이다솜
- 수선화반 : 이연준, 전우용
- 진달래반 : 이인수, 안효경, 전해원, 장준서

남가주 소식

◆ 한인 가톨릭 청소년 대회 (Korean Catholic Youth Day)

“고등학생들은 모두 모여라! 함께 모여 우리의 문화와 신앙을 나누자.” - 주최 : FIAT재단 -

- 일시 : 2014년 1월4일(토) 오전 8시30분~오후 7시30분
- 주제 : Lumen Fidei(The Light of Faith)
- 장소 : Servite 하이스쿨(애나하임 소재)
- 참가대상 : 8학년~12학년
- 참가비 : \$25 * 신청마감 : 1월3일(www.fiat.org)
- 문의 : ☎(714)772-3995 또는 각 본당 고등부 담당자

◆ 남가주성령채신봉사회 '성령체험 수기' 공모합니다.

- 내용 : 남가주성령채신대회 참가후의 성령체험 수기
- 규격 : Letter 용지 5매내외(글자크기 10포인트)
- 마감 : 2014년 3월31일
(당선작발표 : 2014년 4월)
- 시상 : \$500(성부상), \$300(성자상), \$200(성령상)
- 접수 및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기도회장 ☎(310)780-0369

소공동체 11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번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지경수 마태오 972-1469 11/9(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정웅 요한 720-8240 11/16(토) 오후 6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11/8(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김주량 요한 782-8549 11/9(토) 오후 5시
	2	심옥방 미카엘라 999-5808	정남형 알베르트 347-9487 11/9(토) 오후 6시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11/28(목) 추수감사절행사참여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박문주 엘리사벳 968-8280	현석주 아오스당 560-4968 11/15(금) 오후 7시30분
	2	최순옥 스텔라 951-4710	최순옥 스텔라 951-4710
	3	조정선 마리아 945-8204	조정선 마리아 945-8204 11/28(목) 추수감사절행사참여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정병옥 올리아 404-1607 11/18(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윤희동 안토니오 365-7871	1/2	조소영 수산나 804-7645	김운진 카타리나 997-5545 11/8(금) 오후 8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송종두 요한 544-1267 11/8(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리스티아 482-9108	배재일 미카엘 482-9108 11/8(금) 오후 7시
	3	정종미 클라라 818-1799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11/8(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한애경 올리아나 617-3568 11/12(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11월 사목회	오후 1시
---------	-------

청하여라, 주실 것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종종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를 해결해 주는 도움의 손길이 있어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전보다 한층 성숙해지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선생님들이 이끌어 주셨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나 상사, 선후배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운 일을 해낸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무슨 일이든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내가 있기까지 키워 주시고 교육시켜주신 부모님이 있었고, 직장에서는 한 사람의 직장인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인도해 준 선배, 상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변함없이 든든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간절히 청하면 꼭 들어주십니다. 만약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이거나 아직 해야 할 때가 아닌 것입니다.

저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은 꼭 하고, 또 맡은 일은 제대로 해야 하는 성향이라 “조용히 일을 잘 저지른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때는 다소 무리한 일을 벌여서 주위의 걱정을 듣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서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일을 벌여 놓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곤 합니다.

가톨릭언론인협회의 회장직을 제의받았을 때, 저는 신앙심도 미약하고 능력도 부족하여 여러 차례 사양하였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회장직을 맡지 않고는 안 될 지경이 되어 “어쩔 수 없으니 뜻일은 하느님이 맡아 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년 가까이 활동을 하는 동안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감사하게도 하느님께서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저의 능력은 보잘것없지만, 하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면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잘 해결될 거야.”하는 근거 있는 낙관론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일은 없다. 주님께 의지하고 매달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낙담하지 말고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꼭 해결해 주십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마태 7,7)

◆김태식 토마스 / 가톨릭언론인협회의 회장

미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총...

평일미사에 자주 참여하는 편이지만,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미사에물은 봉헌하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원하는 지향으로 미사에물을 봉헌한 사람과 예물을 봉헌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지향을 기도한 사람과는 미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은총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합니다.

☞ 미사 예물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대가나 요금이지 아니기에, 미사 예물의 여부로 은총이 주어지고, 또 주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미사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미사의 은총은 내가 지향을 넣은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사의 은총은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드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부모에게 청을 할 때, 부모는 사랑으로 그 아이의 말을 들어주겠지만, 모든 것을 아이가 청하는 그대로 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라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의 청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가르쳐주는 하느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기도드린다면, 기도의 결과와 상관없이 기도드리는 그 순간부터 이미 은총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아프고, 불안하며, 힘들고, 피로운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이해해주시며, 용서해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성민 신부 / 부산가톨릭대학교 parvus@hanmail.net

똑같은 것이 더 무서울 때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눈감지 말고 웃으라며 셔터를 쏘았는데, 누군 웃고 누군 찡그리고 누군 고개를 숙이고, 또 누군 눈을 감았더군요. 겨우 열 사람. 하나, 둘, 셋을 세는 그 순간도 맞추기 어려우니, 함께 하며 이는 소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제각각 다른 표정들이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